

페퍼스, 3연승 좌절... '최강' 흥국생명에게 셋아웃 패



흥서 0-3 패... 공격 성공률·리시브 효율 등 밀려 테일러, 팀 최다 17점 득점...세터와 호흡 좋아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3연승 도전이 V리그 여자부 '최강자' 흥국생명에게 막혔다. 페퍼스는 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 세트스코어 0-3(22-25 23-25 18-25)으로 졌다.

지난달 22일 한국도로공사와의 홈경기에서 7연패에서 탈출했던 페퍼스는 27일 정관장을 상대로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지만 이날 흥국생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셋아웃 패배를 기록했다.

페퍼스는 승점을 더하지 못했지만 5위(3승 8패 승점 9점)를 유지했다.

페퍼스의 팀 공격 성공률과 리시브 효율은 각각 37.68%와 26.56%로 46%의 공격 성공률과 47.37%의 리시브 효율을 올린 흥국생명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이날 테일러가 17점(공격 성공률 51.52%)으로 팀 최다 득점을 따냈고 박정아가 9득점(34.62%), 이한비 6득점(23.08%)으로 분전했지만 승리를 이끄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1세트에서 페퍼스는 꾸준히 따라가면서 득점 균형을 맞췄지만 9.52%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66.67%의 흥국생명에 한참 밀렸다. 페퍼스는 2세트 18-20 상황에서 흥국생명의 투트쿠의 공격 범실로 한 점 차, 턱 끝까지 추격했다. 그리고 확실히 타점을 잡은 테일러의 연속 득점으로 23-24를 만들었지만, 김연경의 킥오픈으로 2세트도 내줬다.

3세트 흥국생명의 서브 공략이 성공하면서 페퍼스의 경기력은 흔들렸고 범실이 이어졌다. 페퍼스는 고른 득점을 올린 흥국생명에 경기 흐름을 빼앗겼고, 김연경의 킥오픈으로 3세트까지 내주면서 3연승 질주에 무산됐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전체적으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지 못해 서브 공략이 부족했던게 아쉽다"고 경기를 평가했다.

이날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린 테일러에 대해서는 "테일러의 공격 비중이 높아졌고 세터와의 호흡이 점차 맞아지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다"며 "경기는 패했지만 테일러의 활약은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6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GS칼텍스와 맞붙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크스에 세트스코어 0-3 셋아웃 패를 기록했다. 페퍼스 장소연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KOVO 제공>

페퍼스 박정아·장위, 별들의 잔치 V리그 올스타전 출전

김연경 3년 연속 최다 득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박정아와 장위가 내년 1월 '별들의 잔치'에 출전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투표를 실시한 결과 페퍼스 박정아와 장위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에서는 선수 포지션별 최종 선발된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팀이 배정됐다. 팬 투표에서 1만 3748표(36.47점)를 받은 장위는 미들블로커 부문 1위로 K-스타팀, 1만 2468표(21.93점)의 박정아는 아웃사이드 히터 부문 3위로 V-스타팀이 됐다.

K-스타팀에는 실바·김지원(이상 GS칼텍스), 김연경·신연경(이상 흥국생명), 황민경(IBK기업은행)·김다인·양효진(이상 현대건설), 표소주(정관장), 니콜로바(한국도로공사)가 선발됐으며 V-스타팀에서는 빅토리아·최정민(이상 IBK기업은행), 강소희·임명옥(이상 한국도로공사), 염혜선·매가(이상 정관장), 이다현(현대건설), 김수자·이고은(이상 흥국생명)이 코트를 밟는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은 오는 2025년 1월 4일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각 팀의 감독은 정규리그 2라운드 종료 기준 남자부 1위와



박정아

여자부 2위팀 감독이 K-스타팀, 남자부 2위와 여자부 1위팀 감독이 V-스타팀을 맡는다. 한편 '배구여제' 김연경은 팬투표에서 3만932표를 받아 3년 연속, 역대 네 번째(20-21, 22-23,



장위

23-24, 24-25시즌) 남녀부 최다 득표자가 됐다. 김연경은 선수단·미디어 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72.98점을 기록해 그 위력을 과시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신지애, 호주여자골프 ISPS 호주오픈 우승

신지애가 호주여자프로골프 ISPS 호주오픈(총상금 340만 호주달러)에서 우승했다. 신지애는 1일 호주 첼트넘의 킹스턴 히스 골프 클럽(파73)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4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신지애는 2위 애슐리 부하이(남아프리카공화국)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신지애는 2023년 6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어스 몬다민컵 이후 1년 6개월 만

에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8만9000호주달러(약 2억6000만원)다. 신지애는 2013년 이후 이 대회에서 11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고, 호주여자프로골프 승수를 5승으로 늘렸다. 또 개인 통산 65승을 달성했다. 신지애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1승, 레이디스 유라퍼투어 6승, JLPGA 투어 30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1승, 호주여자프로골프 5승을 거뒀고 지금은 사라진 레이디스 아시아투어에서도 한 차례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이를 다 더하면 74승이 되지만 공동 주관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프로대회에서 통산 우승은 65승이 된다. 신지애는 2023년 6월 JLPGA 대회 우승 이후 그해 7월 US여자오픈 준우승, 8월 AIG 여자오픈 3위, 올해 2월 호주여자골프 빅오픈 준우승 등의 성적을 냈다. 신지애는 "우승 트로피에 다시 내 이름을 새기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 대회에서는 안 좋은 날이 없었지만, 오늘은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7년생인 아마추어 국가대표 양효진(남녕고)이 7언더파 284타로 단종 3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연합뉴스

이기흥 체육회장·정몽규 축구협회장 도전 강행

비판 여론·연임 반대에도 출마

"국민적인 비판 여론과 조직 내부의 연임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란히 출마 의사를 밝힌 이기흥(69) 체육회장과 정몽규(62) 축구협회장에게 던지는 체육인들의 질문이다.

이기흥 회장은 직위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체육회 노동조합의 출마 반대에도 직면해 있다.

정몽규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제부로부터 '자격 정치 이상의 중징계' 요구받았고, 축구팬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도 거세다.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수모도 겪는 등 둘 다 '국민 육반이'로 전락했음에도 3선과 4선 도전 의지는 굽히지 않고 있다. 여론의 혹독한 비판에도 선거 출마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체육회장과 축구협회장 자리에 주어지는 명예와 권한, 사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체육회장은 '한국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며 연간 4400억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80여개의 회원 종목단체를 총괄한다. 축구협회도 연간 예산이 19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고, 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대표한다.

체육회장과 축구협회장은 국제 스포츠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IOC 위원은 해외여행 때 입국 비자가 필요 없고,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호텔 투숙시 해당국 국기가 게양되며 IOC 총회 참석 때는 승용차와 통역, 의전 요원이 지원되는 등 의전상 특혜가 쏟아진다. 이 회장이 내년엔 IOC 위원 정년(70세)에 도달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하는 가운데 3선 성공 시 최대 5명에게 임기를 4년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 신청을 노리는 이유다. 정몽규 회장은 올해 5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복귀한 가운데 FIFA 집행부의 핵심 기구인 평의회 재진임을 시도해왔다. FIFA 평의회는 경우 중동 지역의 석유재벌 AFC 회장들과도 교류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수장인 정 회장으로서 기업가로서 해외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좋은 자리인 셈이다. IOC 위원과 AFC 집행위원은 체육회장과 축구협회장 연임의 안전판으로 작용한다. 이 회장은 IOC 위원 현직 프리미엄으로 스포츠 공정위의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정 회장 역시 AFC 집행위원이라는 이점 때문에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가 유력하다. 이와 함께 둘 다 출마하기만 하면 연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시도체육회장을 체육회 이사로 선임하고, 지역 체육회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법 등을 동원해 바닥 표를 다져왔다. 정 회장 역시 현대 계열의 남녀 구단 4개를 보유하고 있는 등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 대항마로 등장한 허정무(69)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